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19주년 기념식

노·사 상생협력·발전기원 협약식도 열려... "구성원 모두 화합·발전하는 재단 만들기 최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지난달 28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념사에서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태권도원이 태권도를 활용한 외래 스포츠 관광객들과 체험·수련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음은 직원들의 노고에 기반한 것이라며 치하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변화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와 유연한 사고, 주인의식을 갖고 더욱 화합 단결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사 공동 선전문 낭독과 협약을 통해 혁신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협약식도 가졌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태권도진흥재단지부 조재동 지부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고 발전하는 재단을 만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재단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지난 2005년 7월 1일 창립해 2010년 공공기관 지정, 2014년 태권도원 개원,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2024년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는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

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로 9월 4일 태권도의 날 기념식과 9월 4일~5일 비추얼 태권도 국제 오픈대회, 9월 6일~8일 세계 태권도 육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등 굵직한 국제 대회와 행사 등이 하반기에 태권도원에서 치루어질 예정이다.

/우주=전문선기자

도내 23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참여 '산골음악회' 무주서 열려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맞이 산골음악회가 지난달 29일 무주군 무주읍 소이나무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한 산골음악회는 자연특별시 무주를 홍보하고 타 시군과의 문화교류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와 진안, 장수, 군산 등 도내 23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함께 한 이날 공연에는 주말을 맞아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과 주민 등 3백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공연은 오후 2시 무주군 '참소리나타와 글노리캘리 팀의 난타 무대를 시작으로 우크렐레와 한국무용, 락밴드, 통기타, 색소폰, 삼도사물놀이, 오키리나, 어쿠스틱밴드 연주가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퀵트와 비즈공예 등 다양한 체험과 프리마켓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공연을 관람한 관광객 이 모 씨(54세, 대전)는 "소이나무공원 옆으로 유유히 강이 흐르고 무엇보다 한적한 분위기가 좋아서 주말이면 자주 찾아오는데 뜻밖의 공연을 만나 너무 반갑고 좋았다"고 밝히며 "무주 인근 지역 동호회원들이 함께 이런 무대를 만든다는 것도 너무 보기 좋았고 잊지 못할 주말여행이었다"고 전했다.

/우주=전문선기자

전주시립예술단 연합공연 '심청'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5~6일 현대희곡 거장 이강백 작품 공연

2024년 전주시립예술단의 야심작 '심청'이 오는 5일 19:30과, 6일 16:00 두차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된다.

전주시립예술단에 따르면 매년 극단,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이 연합해 합동 공연을 제작해 왔다.

올해 공연될 '심청'은 등단한지 50년이 넘는 현대희곡의 거장 이강백의 작품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던 심청의 이야기를 넘어 심청을 인당수로 인도한 선주(船主)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작품이기에 더 흥미롭다.

이수인(전주시립극단 예술감독 겸 상임연출) 연출은 "생의 마지막 사후를 대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남은 삶과 죽음을 짚지만 아름답게 빛날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불씨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주 출신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적 희곡작가인 이강백 작가는 "전주를 떠난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있었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나이 든 지금 전주의 빛, 색깔, 맛, 향기가 뚜렷해져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강렬한 욕구를 갖게 한다"면서 "나는 연어와 같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티켓 가격은 R석 2만 원, S석 1만 5,000원이다



며, 예매는 나루컬처(www.naruculture.com)에서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1522-6278)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앙상블오프스 '꿈꾸는 저녁' 공연

익산 예술의전당, 5일 정상 솔리스트 구성 정통 클래식 연주

정상급 연주자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감동적인 선율이 7월 익산의 밤을 물들인다.

익산 예술의전당은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정상의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정통 클래식 연주 단체 앙상블오프스의 '꿈꾸는 저녁' 공연을 개최한다.

앙상블오프스는 2009년 창단 이래 정상급 연주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정통 클래식 연주단체다.

작곡가 류재준이 예술감독이며,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을 필두로 바이올린 송지원, 비올라 김상진·이하나, 첼로 김민지·심준호, 클라리넷 체제일이 이번 익산 공연 무대에 오른다.

예술의전당은 앙상블오프스의 강력한 흡입력과 카리스마 있는 연주가 정통 클래식을 희망하는 익산시민들의 감동을 덜어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은 한 여름 크리스마스 같은 시간을 선사할 예술감독 류재준 작곡의 '캐럴변주곡'을 첫 곡으로 선보인다. 이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오중주 KV.581, 드보르자크의 현악중주 Op. 48을 연주한다.

특히, 류재준의 캐럴변주곡은 전 세계인의 캐럴인 '오 탄넨바움' 테마와 12개의 변주로 구성된 작품으로 실내악 입문자를 위해 앙상블오프스의 위촉으로 작곡됐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하고, 티켓은 전석 1만 원으로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주최하는 '2024 공연예술유통' 공모 사업에 익산시가 선정돼 마련됐다. 공연은 예술단체 앙상블오프스와 익산예술의전당 7개 기관이 협력해 진행한다.

/익산=이재춘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김명숙 강산제 심청가 완창무대

기획공연 '소리 판' 완창무대 일환... 13일 4시간 동안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소리꾼 김명숙의 강산제 심청가 완창무대를 4시간 동안 펼친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의 대중화와 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민속국악원의 대표 기획공연 '소리 판' 완창무대의 일환으로, 김명숙은 제16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과 제40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다.

고수 조용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법 예능 보유자이고, 고수 조용수는 제18회 전주 전국 고수대회 대령 고수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 참시자로 알려진 '박유전' 명창이 만든 작품으로, 유연하고 애절한 소리가 특징으로, 서편제와 동편제의 장



점을 결합해 보성소리를 만들어 판소리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기품 있는 소리로 평가받는 다.

한편 이번 공연 관람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 또는 공식 누리집(namwon.gugak.go.kr)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풍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